

해남군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4곳 조성

무고지구 기반공사 완료·화봉지구 지난달 착공

후산·황계동지구도 추진...조합원 절반 도시민

해남군이 도시민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전원마을(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남군은 문내면 무고지구와 화원면 화봉지구·후산지구, 삼산면 황계동지구 등 4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이 가운데 문내 무고지구는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했고, 화원 화봉지구는 지난달 착수했다.

또 화원 후산지구는 전남도와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마을정비구역 등을 협의의 중으로 내년 초 기반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새로 조합을 결성해 사업지구를 신청한 황계동지구는 오는 10월중 사업지구가 선정되면 본격 추진된다.

지난 2009년 해남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문내 무고지구는 2만9965㎡ 규모로, 21동의 주택을 비롯해 마을내 도로와 오·폐

수처리장 등이 완료됐다.

지난달 기반공사를 착공한 화원 화봉지구는 2만3414㎡에 모두 27가구가 들어설 계획으로, 현재 18가구가 주택건축신고를 마쳤다. 군은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12억원을 지원했다. 오는 12월말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임주자 주도형으로 추진되는 화원 후산지구는 2만9954㎡에 3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들 3지구는 모두 해안가와 연결해 풍광이 아름답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파인

비치 골프장과 가까운 곳으로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많다. 실제로 조합원의 50%가 도시민으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보이고 있다.

두륜산 도립공원과 대흥사 주변에 위치한 삼산 황계동지구는 현재 2016년도 신규마을 사업신청을 한 상태다. 2만4157㎡에 모두 27가구가 들어선다.

해남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임주자주도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시민의 농촌 유입과 함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군이 공익성·사업성을 겸비한 자생력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사랑나눔영농조합법인.

진도군 ‘풀뿌리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컨설팅·홍보서 인건비까지...통합지원체계 구축

진도군이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나서고 있다.

진도군은 “민선 6기 들어 역점적으로 군민소득 1조원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진도군 사회적기업으로는 진도 민속문화예술단이 활동하고 있다. 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는 사랑나눔 영농조합법인과 명품울금 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가 활발하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에 지정된 업체는 브랜드

기술개발, 마케팅과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등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또 노무와 회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 경영 컨설팅과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군은 민선 6기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경제활력사업소 일자리 담당’을 신설, 컨설팅·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하는 등 공익성과 함께 사업성을 겸비한 자생력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문의(061-540-6422) /진도=박현영기자 hyupark@

완도 다시마 스낵

美 수출길 오른다

월마트와 100만달러 계약



완도 청정해역에서 생산한 다시마를 이용해 만든 건강스낵이 미국 수출길에 오른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향아식품(대표 김월성)에서 자체개발한 ‘켈프 칩’(다시마 스낵·사진)을 미국에 수출한다.

미국 월마트와 100만달러 수출계약을 한 이 켈프칩은 오는 15일 선적돼 미국으로 향한다. 홍콩 시티슈퍼와도 입점이 확정됐으며, 중국 상하이 진출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입점 예약이 완료됐으며 제주면세점에서는 인기에 판매되고 있다.

다시마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돼 포만감을 유지해 주고 체내에 쌓여 있는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 건강한 바다 식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양파맛, 마늘맛, 바비큐맛, 피자맛, 오리지널 등 다섯 가지 맛으로 출시된 이 스낵은 굵거나 튀기지 않아 다시마 영양소를 변형없이 그대로 보존한 간식이다.

한편 완도에서 생산된 다시마는 지난해 기준 17만여 t으로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미니밤호박 본격 출하

최근 해남군 옥천면 다산마을 시설하우스에서 미니 밤호박 출하가 한창이다. 해남군은 올해 62ha(230여 농가)에서 미니 밤호박 900t을 생산해 5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땅끝해남 미니밤호박은 1박스(4kg) 2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해남군 제공>

완도전복 Wando Abalone

글로벌 브랜드 상표 개발

美·中·홍콩 등 상표 출원

해외시장 마케팅·공략 나서

국내 생산량의 81%를 차지하는 완도전복이 ‘Wando Abalone’(완도 아발론)이라는 상표를 달고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전복의 해외시장 유통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완도전복 글로벌 브랜드 리뉴얼사업’을 추진해 ‘완도 아발론’ 상표를 개발했다.

군은 완도전복이 국내에서는 최고의 보

양식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반면 해외에서는 비교적 인지도가 낮고 상표권이 없어 시장 개척 및 마케팅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글로벌 브랜드 리뉴얼사업을 추진했다.

‘완도 아발론’은 한국을 상징하는 단청 문양과 색채에 전복형상을 접합해 상징성과 상품성을 내포했다. 또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 완도의 청정해역 특산물이라는 의미를 담은 로고 타입을 결합해 제작했다.

군은 이달내로 미국, 중국, 홍콩에 상표 출원을 하고, 내년 7월까지 상표등록을 마

치면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전복의 해외시장 개척과 비교우위 자원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완도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완도전복은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며, 연간 3700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효자산업으로 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 우리밀 재배면적 작년보다 22% 늘어

올해 해남지역 우리밀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2%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우리밀 재배면적이 2013년 760ha, 2014년 1091ha, 올해 1331ha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남 전체 재배면적의 44%, 전국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해남지역 우리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08년부터 보리수매제도 폐지(2012년 정부 보리수매 폐지)에 대비해 대체작목

으로 꾸준히 계약재배를 추진해 온 것과 각종 자체 지원사업, 농업 수매수수료 지원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남 우리밀은 100% 계약재배로 판로걱정이 없다. 2모작을 실시하는 밭에 대한 직불금도 1ha당 9만9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농가 호응이 높다.

해남군 관계자는 “향후 2000ha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밀 재배에 대한 교육과 자재지원 등으로 고품질 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둘레길·생태공원...해남군 어불도 개발

해남군이 송지면 어불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땅끝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연륙교와 해안가 둘레길을 조성한다.

어불도는 73가구 223명이 거주하는

해남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태풍 등 기후변화에 따라 생활환경이 제한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군은 우선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길이 400m, 폭 2.5~3.5m의 연륙교를 개설할 계획이다. 차량이 아닌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든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관장업종	면적
1층	편의점, 소매점	잔여 128㎡
2층	사무실	잔여 1201㎡
3층	사무실	1629㎡
4층	사무실	1267㎡
5층	사무실	1400㎡
6층	사무실	임대완료
7층	사무실	1400㎡
8층	사무실	1383㎡
9층	사무실	1367㎡
10층	사무실	1342㎡
11층	사무실	1307㎡
12층	사무실	임대완료
13층	사무실	임대완료
14층	사무실	잔여 111㎡

* 임대료 3.3㎡당 문의바람, 관리비 3.3㎡당 9,000원

상무비즈센터

(구.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차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

수익형 고층 아파트 특별분양 (한정 세대)

호반 리젠시빌 아파트 (아파트 명가 호반건설)

특별분양가 총 5,350 만원

1. 풀옵션 올리모델링 42㎡, 전용비율 70% 이상
2. 수익율 15~16% (전국 최고 수익율, 관리비 저렴)
3. 나주혁신도시 근거리 위치 / 동신대 정문 앞
4. 미래가치 최고, 신세계 전남, 광주 프리미엄 아울렛 예정지 입구
5. 오피스텔의 반값 / 2배의 가치와 만족도
6. 선착순 동호수 지정, 19세대 한정

Tip

✓ 전세 3,900만 ~ 4,200만

✓ 월세 가능, 486세대(대단지), 주차 완비

스타 공인중개사 (대표: 정재호) ☎ 010-3419-9100